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연구

윤미혜¹, 박영남^{2*}

¹유니나치과의원 실장, ²김천대학교 교수

Fusion Research on the Factors Affecting Self-esteem of Orthodontic Patients

Mi-Hae Yun¹, Young-Nam Park^{2*}

¹Manager, Dept. of Unina dental clinic

²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과 교정 중인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교정치료 과정시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전·청주 지역 교정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30명을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정치료 필요성($\beta=0.186$) 치과치료 만족도($\beta=0.236$), 대인관계 능력($\beta=0.407$)순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7.6%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환자의 교정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과치료 만족도, 대인관계능력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능력, 교정환자, 만족도, 교정필요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factors affecting self - esteem of orthodontic patients.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f - esteem of the orthodontic patients were monthly income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ecessity of orthodontic treatment were the highest at 20-25 years of ag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f - esteem of the orthodontic patients were the order of correction ($\beta= 0.186$), dental treatment satisfaction ($\beta= 0.236$),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a= 0.407$),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27.6%.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ud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o improve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correction of orthodontic patients, the satisfaction of dental treatment,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Key Words :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thodontic patients, Satisfaction, Orthodontic need

1. 서론

경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외모에 대한 욕구와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외모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여 현대인의 외모에 관한 관심은 자기만족의 수준을 넘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와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1]. 외모는 호감과 비호감으로 결정된다 할 수 있고 느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가장 쉽게 눈에 띄는 부분은 얼굴이고, 이는 개인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2]. 얼굴 중 특히 치

*Corresponding Author : Young-Nam Park(ivy9797@empal.com)

아는 타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미소 지을 때 가장 노출 되는 부위로 구강주위의 형태는 전체적인 외모에 영향을 주고, 첫인상을 좌우하기도 한다[3].

과거에는 치료를 위해 치과로 내원하였지만 소득수준의 증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과 더불어 심미성과 관련이 깊은 교정치료에 대한 인식이 변화 되고 있으며, 현재 공중구강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4]. 교정치료는 골격적인 부조화의 치료와 가지런하지 않은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치료를 말한다. 이는 상악과 하악의 골격적 조화와 건강한 구강조직을 이룸은 물론 심미적으로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교정치료를 원하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 교정치료의 만족은 저작기능이나 치아의 건강보다는 대인관계 능력, 심미, 심리적인 측면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경우 외모로 인해 자신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5], 부정교합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며 자신감이 결여된다 하였다[6].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로 이는 능력, 가치, 성공여부 등을 스스로 수용하고 신뢰하는 태도이다[7]. 이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 외에도,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8].

교정환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김[9]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도 증가한다고 하였고, Pelham[10]은 여자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정[11]은 치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교정치료에 의한 치열 및 안모의 심미성 개선이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도움이 되며 교정치료의 주된 이유가 심미적 관점과 문제 개선이라는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9-13].

이와 같이 교정환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정환자의 치료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치료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과 교정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교정치료 환자 상담과 환자의 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전·청주 지역 교정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30명을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 크기는 Cohen[14]의 기준에 따라 G*power 3.1.9.2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0.15 (0.02),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0.90), 예측 변수(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능력, 교정치료에 대한 만족도, 교정치료의 필요성)를 감안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72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1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중 불성실한 자료 26부를 제외하고 204부(회수율 97.1%)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도구로 일반적 특성 6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으로 Rosenberg가 개발하고[15], 전[16]이 번역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였고, Cronbach's α 는 0.745이었다. 대인관계 능력 36문항은 한 등[17]의 연구 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Cronbach's α 는 0.886이었다. 교정치료 만족도 18문항은 이[18]의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Cronbach's α 는 0.926이었다.

교정치료의 필요성은 Slade[19]가 개발한 OHIP-14 중 1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한 민 등[20]의 연구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 사용하였고, Cronbach's α 는 0.838 이었다. 측정기준으로 5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고, 연구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교정치료 만족도, 교정치료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3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은 ANOVA와 T-test를 하였고, 평균비교는 scheffe'로 분석하였다. 교정환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s correlation 으로 실시

하였고,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의 영향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71.1%로 많았고, 연령은 '20-25세'가 36.8%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이 89.25%로 많았다. 학력은 '대학 재학 중'이 34.3%로 가장 많았고, 교정치료기간은 '12개월 이하'가 46.1%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 N(%)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59	28.9
	Female	145	71.1
Age	<20	68	33.3
	20-25	75	36.8
	26≤	61	29.9
Marital status	Unmarried	182	89.2
	Married	22	10.8
Educational	High school graduation	62	30.4
	University	70	34.3
	University graduation	61	29.9
	Graduate graduate or above	11	5.4
Monthly income	No income	57	27.9
	<200	96	47.1
	200-299	31	15.2
	300-399	9	4.4
	≤400	11	5.4
Orthodontic treatment period	≥12 months	94	46.1
	13-24 months	88	43.1
	≤25 months	22	10.8
	Total	204	100.0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월 수입($p=0.002$)은 '4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Self-esteem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 M±SD

Characteristics	division	M±SD	t or F (ρ)
Gender	Male	3.73±0.53	0.666 (0.506)
	Female	3.68±0.49	
Age	<20	3.67±0.55	0.190 (0.827)
	20-25	3.69±0.49	
	≤26	3.72±0.48	
Marital status	Unmarried	3.68±0.50	-1.231 (0.220)
	Married	3.82±0.57	
Educational	High school graduation	3.76±0.47	2.326 (0.076)
	University	3.61±0.56	
	University graduation	3.67±0.47	
		3.99±0.40	
Monthly income	No income	3.73±0.48	4.306 (0.002)
	<200	3.56±0.52	
	200-299	3.88±0.45	
	300-399	3.75±0.42	
	≤400	4.04±0.44	
Orthodontic treatment period	≥12 months	3.74±0.46	1.466 (0.233)
	13-24 months	3.62±0.56	
	≤25 months	3.77±0.4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정도는 Table 3에서 보면, 결혼여부는 '미혼'에서 높았고, 학력에서는 '대학원 재학이상'에서, 월 수입이 '400만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 M±SD

Characteristics	division	M±SD	t or F (ρ)
Gender	Male	3.63±0.45	-0.879 (0.381)
	Female	3.69±0.49	
Age	<20	3.72±0.51	0.642 (0.527)
	20-25	3.66±0.42	
	≤26	3.62±0.51	
Marital status	Unmarried	3.68±0.45	1.347 (0.179)
	Married	3.54±0.66	
Educational	High school graduation	3.72±0.42	1.767 (0.155)
	University	3.67±0.54	
	University graduation	3.58±0.48	
		3.89±0.36	

Monthly income	No income	3.90±0.37	1.796 (0.131)
	<200	3.61±0.49	
	200-299	3.69±0.29	
	300-399	3.45±0.81	
	≤400	3.82±0.42	
Orthodontic treatment period	≥12 months	3.65±0.47	0.134 (0.875)
	13-24 months	3.69±0.49	
	≤25 months	3.69±0.48	
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의 필요성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의 필요성은 다음 Table 4에서 보면 연령($p=0.030$)은 '20-25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 Necessity of orthodontic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Unit : M±SD

Characteristics	division	M±SD	t or F (p)
Gender	Male	4.11±0.85	1.714 (0.088)
	Female	3.86±1.01	
Age	<20	3.98±0.93	3.577 (0.030)
	20-25	4.11±0.96 ^a	
	≤26	3.67±0.99 ^b	
Marital status	Unmarried	3.95±0.94	0.455 (0.650)
	Married	3.85±1.25	
Educational	High school graduation	3.92±1.15	0.869 (0.458)
	University	4.06±0.93	
	University graduation	3.79±0.88	
		4.01±0.45	
Monthly income	No income	4.06±0.93	0.783 (0.537)
	<200	3.85±1.04	
	200-299	3.90±1.01	
	300-399	3.83±0.83	
	≤400	3.84±0.74	
Orthodontic treatment period	≥12 months	3.95±1.04	0.036 (0.964)
	13-24 months	3.91±0.92	
	≤25 months	3.95±0.94	
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3.5 변수 간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외 상관관계를 보면, 대인관계 능력($r=0.540$), 치과치료 만족도($r=0.257$), 교정치료 필요성($r=0.186$)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Characteristics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thodontic patients Satisfaction	Orthodontic need
Self-esteem	1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0.464**	1	-	-
Orthodontic patients Satisfaction	0.257**	0.024	1	-
Orthodontic need	0.186**	0.132	0.097	1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3.6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 요인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 요인을 준 독립변수들을 Table 6에서 보면 대인관계능력($t=7.381$, $p=0.001$), 치과치료만족도($t=3.938$, $p=0.001$), 교정치료 필요성($t=2.689$, $p=0.008$)이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다. 잔차의 독립성에서는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805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므로 위 모형은 유의한 모형이었다($F=26.775$, $p<0.001$). 분산팽창요인(VIF)은 1.000 ~ 1.018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능력, 치과치료 만족도, 교정치료 필요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정치료 필요성($\beta=0.186$) 치과치료 만족도($\beta=0.236$), 대인관계 능력($\beta=0.407$)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7.6%로 나타났다.

Table 6. Factors affecting self-esteem of orthodontic patients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s	0.831	0.335		2.483	0.014	
Self-esteem	0.470	0.064	0.445	7.381	0.001	1.018
Orthodontic patients Satisfaction	0.207	0.053	0.236	3.938	0.001	1.010
Orthodontic need	0.097	0.036	0.186	2.689	0.008	1.000
$R^2=.287$, Adjusted $R^2=.276$, $F =26.775$ ($\alpha<0.001$), Durbin-Watson: 1.855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alpha=0.05$						

4. 총괄 및 고안

현대사회에서 개인에게 부정교합이란 단지 치열이 고르지 않고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가와 대인관계 능력에서의 자신감,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환자들은 교정치료를 받는 이유로 기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보다 미용을 위해 진행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1].

이에 본 연구는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교정환자 상담 및 환자교육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교정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이 71.1%로 높게 나타났고, 결혼여부에서는 미혼 89.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2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정 등[22]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심미적인 측면에서 여성이고 미혼일 때 관심이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 월수입($p=0.002$)은 '400만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23,23]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은 남성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 등[2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여성에서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난 박[24]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나 민 등[20]의 연구에서 미혼이 더 높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여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의 필요성을 보면, 연령($p=0.030$)은 20-25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 등[24]은 학생들이 면접 시 외모관심도나 외모비중이 높을수록 취업불안감이 높게 나타났고, 취업 결정에 면접 시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20대는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면접, 취업 등 사회활동을 위한 과정에서 가지려한 치아와 보다 심미적인 외모를 원하게 되어 교정치료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과 상관계수를 보면, 대인관계 능력($r=0.540$), 치과치료 만족도($r=0.257$), 교정치료 필요성($r=0.186$)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정과 이[11]의 주관적인 치아

에 대한 인식과 학력 및 치아로 인한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고 하였고, 이 등[25]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양 등[26]의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능력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정치료 필요성($\beta=0.186$) 치과치료 만족도($\beta=0.236$), 대인관계 능력($\beta=0.407$)순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27.6%를 보였다. 민 등[20]은 성별이 남자이고, 수입이 많을수록, 결혼 상태는 미혼일 때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교정치료 특성은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교정환자의 경우 교정에 관한 관심과 치료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왔음에도 교정필요성과 치과치료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교정치료를 통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치아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 외모와 관련이 깊은 치아는 교정치료라는 심미적인 치료를 통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교정 환자 치료 시,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해 환자 상담 및 환자교육에 활용한다면 환자의 교정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정환자의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아 모든 교정환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다.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고찰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영역 중 심미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교정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연구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정치료 환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 및 심리적인 요인을 찾아서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 교정 치료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알

아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어 향후 교정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치료 상담과 교육, 교정치료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자의 동의를 구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자'가 71.1%로 많았고, 연령은 '20-25세'가 36.8%로 많았으며, 결혼 여부에서 '미혼'이 89.2%로 많았다. 학력은 '대학 재학 중'이 34.3%로 많았고, 교정치료기간은 '12개월 이하'가 46.1%로 가장 많았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보면, 학력은 '대학원재학 이상'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수입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높았으며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필요성을 보면, 연령은 '20-25세'에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4.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를 보면, 대인관계 능력($r=0.540$), 치과치료 만족도($r=0.257$), 교정치료 필요성($r=0.186$)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5.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정치료 필요성, 치과치료 만족도, 대인관계 능력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영향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과 교정치료는 안모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단순히 자기만족의 단계를 넘어서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나 대인관계 능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P. V. Geld, P. Oosterveld, G. V. Heck & A. M. Kuijpers-Jagtman. (2007). Smile attractiveness. Self-perception and influence on personality. *Angle Orthod*, 77(5), 759-765.
- [2] P. William Robert & R. P. J. R. White. (1990). Who needs 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Int J Adult Orthodon Orthognath Surg*, 5(2), 81-89.
- [3] J. H. Hong. (2007). Good teeth care is sufficient enough to change one's impression, *Seoul Pampas*. 210-11.
- [4] S. J. Lee & C. H. Suhr. (1994). Recognition of malocclusion and orthodontic treatment need of 7~18 year-old Korean adolescent. *J of the Korean Orthodontics*, 24(2), 367-394.
- [5] H. O. Lee & J. Y. Park.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Orthodontic Treatment,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of among Som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8(4), 234-240.
- [6] W. C. Shaw, K. D. O'Brien, S. Richmond & P. Brook. (1991). Quality control in orthodontics: risk/benefit considerations. *Br Dent J*, 170(1), 33-7.
- [7] S. Y. Jung. (2010). *The influence of orthognathic surgery for facial improvement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body cathexi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Incheon.
- [8] S. Y. Jang. (2013). Effects of self esteem, family suppor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J Korean Health Edu & Promotion*, 30(2), 11-22.
- [9] Y. K. Seo. (2003).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 [10] B. W. Pelham, M. C. Mirenberg, J. T. Jones. (2002). Why Susi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implicit egotism and major life decisions. *J Pers Soc Psychol*, 82(4), 469-487.
- [11] E. S. Jung & K. H. Lee. (2016).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teeth awareness and satisfaction on self-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2), 315-324.
- [12] M. H. Jung. (2007). Effects of malocclusion and orthodontic treatmen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Korean J Orthod*, 37(1), 56-64.
- [13] M. H. Kang, E. S. Lee, C. H. Lee & S. S. Kim.

- (2012). Non-therapeutic purpose in orthodontics and tooth and jaw surgery for the recognition of some students on research. *J Korean Soc Dent Hyg*, 12(6), 1232-1240.
- [14] J. Cohen.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407-414.
- [15] M. Rosenberg. (1973). Which significant other. *Am behav sci*, 16(6), 829-860.
- [16] B. J. Je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chong*, 11(1), 109-129.
- [17] N. A. Han & D. G. Lee. (201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 [18] D. G. Lee. (2017). *Comparison of related influencing factors on medical services satisfaction between general dental patients and orthodontic patients*, Daegu Haany University grad school.
- [19] G. D. Slade. (1997). Derivation and validation of a short form oral health impact profile. *Community Dentistry and Oral Epidemiology*, 25, 284-290.
- [20] K. J. Min & J. A. Do. (2009). The influence of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on self-esteem of patients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J Korean Acad Indus Co Soc*, 10(7), 1773-1778.
- [21] M. Y. Kim, J. H. Park & N. Y. Jung. (2014). The influence of sleep quality of patients at initial stage of orthodontic treatment.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14(3), 343-351.
- [22] E. S. Jung, S. Y. Oh, S. H. Lim, E. J. Kim & K. H. Lee. (2018). A study of hospital determinants and treatment satisfaction of patients in an orthodontic clinic, specifically targeting 20-year-old pati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5), 751-761.
- [23] K. A. Park. (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 - Esteem between Orthodontic patients and General Dental Patient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4] M. K. Cho, E. J. Choi, J. W. Lee, Y. N. Lee & J. Y. Chae. (2013).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0(2), 141-150.
- [25] H. K. Lee & N. S. Kim. (2014). Dental fear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mediating variable model(self-esteem & self-regulation). *J Korean Soc Dent Hyg*, 14(4), 577-584.
- [26] S. Yang & Y. S. Choi. (2000). Effects of Training Grooming Skills to Chronic Schizophrenic Inpatients on Improving Satisfaction on Self-appeara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J Korean Acad Psychiatric & Ment Health Nurs*, 9(3), 358-370.

윤 미 해(Mi-Hae Yun)

[정회원]



- 2013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복지 대학원 구강보건학과 (구강보건학 석사)
- 2017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박사)
- 2012년 8월 ~ 현재 : 유니나 치과 재직, 대전보건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통계학

· E-Mail : papa0710@nate.com

박 영 남(Young-Nam Park)

[정회원]



- 2008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석사)
- 2011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예방치학, 구강보건학

· E-Mail : ivy9797@empal.com